

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, 느린학습자 학교 적응 지원 역량 높인다

양승미 기자 ysjsm1215@hanmail.net

등록 2026년06월12일



▲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, 느린학습자 학교 적응 지원 역량 높인다

(데일리대구경북뉴스=양승미 기자)=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(센터장 박재홍)는 지난 10일 지역 내 초등학교 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'느린학습자의 이해와 지원전략'을 주제로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.

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,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지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.

느린 학습자는 지능지수 71~84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·청소년을 의미하며, 학습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또래보다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.

교육은 느린 학습자의 인지·정서적 특성 이해를 비롯해 학교와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전략, 정서·사회성 발달을 위한 훈련 방법,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지 및 동기부여 접근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.

참석 교사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지원 방법을 공유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박재홍 센터장은 "느린학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